제1,2,3 RUTC 실현 : 영적 승리자의 축복 실현(엡6:10-20) 2/24/2019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 속에서 23차 세계 선교대회를 잘 다녀왔다.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지만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과 우리 교회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감사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되는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계속 되고 있다. 그 속에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시달리기까지 하고 있다. 누구의 전략일까?

이유는 하나이다. 그냥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일한 복음, 유일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누린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마16:13-19)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절대 제자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가 가는 곳에 사단은 무너지는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다. 내 현장에서 무엇을 매고 풀든지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다. 절대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축복을 내 현장에서 실현시키고, 무너지는 교회와 후대와 세상을 살리라는 것이다.

1. 반드시 세가지 축복부터 누려야 한다(10-12절)

1)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이다(10절)

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가? 계속 고백하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라.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분께 속해 있다(갈2:20, 사43:1)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다. 주인 바뀌었다. 더 이상 내 것, 내 기준, 내 수준 아니다.

② 조금만 그 분의 계획, 사랑,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힘”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표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 날 사랑하신 것이다(롬5:8).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절대적인 사랑이 없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분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리스도(행1:1), 하나님의 나라(행1:3), 성령의 능력(행1:8)

 조금만 집중해보라. 하루에 단 10분 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행1:14). 시간이 부족할 때는 24시 기도하라.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2)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현장에서 누릴 영적 승리다(11절).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다. 이제는 마귀와 대적하라는 것이다.

 대적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다(눅10:19, 약4:7, 벧전5:8).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힘도 주시는 것이다.

 몸이 약하고 질병이 올 때도 영적 싸움하라(고후12:7-9). 갈등과 낙심이 올 때도 영적 싸움하라(엡6:12)

3) 우리 앞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일곱 렘넌트들이 누린 써밋의 축복이다(12절)

 마귀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다. 세상 탑 1%를 차지한 자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3써밋(영적써밋, 기능써밋, 문화써밋)으로 세워서 그들 앞에 세워야 한다.

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이사야 55:4 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을 “만민의 증인으로, 리더로, 영적사령관”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자다. 영적 승리를 누릴 자다.

② 정말로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 분의 언약에 집중하고, 21가지 전도자의 삶 하나씩 실천해보라.

 (다른 거 없어도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면 된다. 뭘 해도 천명, 소명, 사명 붙 잡고 하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라.

 지금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필연, 절대적 역사를 기대하라. 24시, 25시, 영원이라는 하나님 시간표 잡으라. 이 모든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되는 날이 응답과 증거가 오는 내 시간표이다)

2. 세가지 영적 전쟁을 계속하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선 전사들이다. 특히 렘넌트들은 기억하라(딤후2:3-4)

 이미 주셨고, 주실 축복을 못 누리도록 속일 것(궤계)이기 때문에 전신 갑주 입고 영적 싸움하라는 것이다.

1) 복음 놓치지 않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13-17절).

 사단은 우리가 복음 놓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군인이 무장을 풀고 있을 때는 당하게 된다(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복음 아닌 사람의 소리 너무 듣지 마라. 교회 안에도 쓸데 없는 불신앙의 소리들이 많다.

 의의 흉배, 부족하고 실패하는 내 모습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고 담대하라. 평안의 신, 염려와 불 안과 두려움은 무조건 사단의 것이다(요14:7, 딤후1:7). 믿음의 방패, 우리는 어떤 경우도 마귀에게 당할 사람이 아니다. 구원의 투구,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다. 말씀의 검, 강단의 말씀만 잡아도 한 주간 승리한다.

2)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생각이 기도가 되게 만들어보라.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라. 교회를 위해, 현장의 전도대상자(예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보라.

 기도하는 중직자(삼상12:23), 기도하는 부모(창37:11), 기도하는 렘넌트(에스더4:16)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교 회, 가정, 현장에 사단의 세력이 꺽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3)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19절)

 모든 영혼, 모든 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전도와 선교다. 마귀는 성도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야 한다. 성도들과 교회가 딴 거 다 하고, 이거 놓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그것이 본문에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다.

 한 선교사가 전한 복음으로, 한 렘넌트가 사고를 당해 받은 보상금으로 유치원을 세워 선교를 시작했는데, 대통 령이 선교대회에 참석했다(바누아트). 한 교회와 의료 선교팀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국가 유공 훈장을 가지 고 왔다(캄보디아). 나와 내 후손이 참된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을 누릴 것이다.

결론-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끝냈고, 그 위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절대 시스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무너져 가는 이 시대 교회와 237개국 살리기 위해 영적 싸움에 승리할 군사들이다(절대 제자). 우리가 있는 곳이 영적 전쟁의 자리요, 승리를 누릴 자리다(절대 현장)